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부안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7만 7199필지를 대상으로...

검증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음성 동문개방 '관람객 동선 확대'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3월 1일부터 고창음성 내 동문(등양루)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창음성과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수상데크를 연계한 관람객 동선이 확대되면서 외부 관광객의 지역내 체류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음성의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성곽 둘레길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산책로를 정비했다. 또 화장실 리모델링과 화장실내 안산 비상벨 설치, 커피자판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조선시대 전통복장의 수문장 운영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역사문화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앞장'

정읍시, 9000만원 투입... 생산·가공·유통 주체 인증비 지원

정읍시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취급자에 대한 인증비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생산하는 지역 165개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으로...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2023 주요업무보고 진행

3일차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질의·대안 제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96회 임시회 둘째 날인 16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먼저, 임정호 의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하였으며, 이경신 의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가 상승·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발생하고 있어 소각장 반입 물량 감소를 위해서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했으며, 차남준 의원은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경우 설치장소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민규 의원은 복분자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중간 유통업체 간 연결과 협력을 군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인규 의원은 매년 철새를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동림저수지를 방문하는데 동림저수지 둘레길 사업 지연으로 데크, 전망대 등 시설물 파손이 심각해 철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만 의원은 수의계약 시 주소만 고창에 둔 채 활동하지 않는 업체들보다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로 활동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종훈 의원은 전기세와 경유 가격 등 폭등으로 에너지값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농업정책 입안 시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오세환 의원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시 종사자들의 건강과 위생 측면에서 가스레인지 완전연소를 위한 기구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선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빨리 들어와 농사를 도울 수 있도록 입국 시 요되는 가족 확인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수박' 이을 '고창미니수박'

고창군, 미니수박 첫 정식 시작... 1인 가구 급증 경쟁력 높아

고창군이 '고창수박'의 명성을 '고창미니수박'으로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일 삼덕읍 고창군수는 고창미니수박 첫 정식 현장을 찾아 미니수박 모종을 직접 심어보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한동석)'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창군 미니수박 면적은 지난해 20.5ha에서 올 봄 식재면 55.7ha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포육이 노란 블랙망고와 블랙보스 수박도 33.2ha에서 재배되고 있어 고창군의 중·소과종 수박이 전국면적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에 참여한 고창 미니수박은 이른바 5월부터 맛 볼 수 있다. 고창미니수박연합회는 고창군의 6개 미니수박 작목반을 하나로 합한 단체로 약 100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고창미니수박 발전을 위해 △작은수박 브랜드 육성지원 시범사업 △원예특작반



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미니수박 토양 및 양분관리 기술 현장실증 연구사업(전라북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공동연구)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촌개발대학 시설원예과를 운영하고, 미니수박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며 재배기술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덕읍 고창군수는 "고창 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비트렌드에 맞춘 미니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주민 체감형 정책발굴 '총력'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책발굴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30일간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민참여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는 '시민참여 열린 시장'이라는 시장 목표를 실천하며 시장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실생활 편의 향상과 주민발착형 정책, 청년·인구 유입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공모주제는 특별주제와 일반주제로 특별주제는 △기부자들에게 보람을 줄 고창사랑 기금사업 발굴 제안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 발굴 제안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정읍시를 위한 정책 제안이다.

일반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명칭 공모... 최우수작 '한국가요촌 달하' 선정

정읍시가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 '한국가요촌 달하'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정읍시를 주제로 조성한 의미와 목적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서 정읍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총 800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시장조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한국가요촌 달하'를 최우수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하'에서 '한국가요촌'은 정읍이 한국민속촌처럼 가요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테마파크라는 확장적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달하'는 백제가요 정읍시의 첫 가사로 부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이미지로 떠오르며, 특색 있고 어

감도 좋아 젊은 층에도 마음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작으로는 '달하공원', '장려작에는 '백제가요 달하공원' 선정됐다.

당선작에는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30만 원의 운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명칭 공모에 참신하고 차별화된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정읍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노형수 고창부군수, 주요 사업지 현장점검

노형수 고창부군수가 지역에 활력을 더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노형수 부군수는 관내 주요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상하면 명사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안도로를 점검하고 해안가 사구의 침식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하면이 고향이기도 한 노 부군수는 "국내 최고의 해안도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문기관이 참여한 사구와 자생식물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해안도로 확장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저수지 일원을 찾아 홍수,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방지 위해 저류지 조성사업 현장을 살폈다. 군은 저류지를 활용한 농동굴 꽃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사계절 꽃 관람이 가능한 테마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노형수 부군수는 "저지대 침수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Energy-saving campaign graphic with a globe and list of tips: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Includes text: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